

이달의 초점

거대변화의 도전과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향한 응전

거대변화(인구·기술·기후 변화)와 지속가능성 담론

| 여유진·우선희 |

인구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과 정책 대응

| 조성은 |

기술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과 정책 대응

| 김기태 |

기후변화 대응 생태사회정책의 범주와 대안

| 여유진 |


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기획의 글 (Foreword)

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

인구·기술·기후변화는 상호 순환적 연쇄를 형성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. 더구나 이러한 변화는 가속도가 붙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 인식, 성찰, 대응에 요구되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. 합리적 선택이나 이성적 판단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는 근대적 희망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이유이자, 변화를 ‘위기’이면서 동시에 ‘기회’로 만들 사회공학적 의지와 노력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.

2026년 4월호 ‘이달의 초점’은 ‘거대변화의 도전과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향한 응전’이라는 주제 하에 네 개의 원고로 꾸려졌다. 첫 번째 글에서는 거대변화로서 인구·기술·기후 변화의 양상과, 대안 담론으로서 지속가능성 논의와 접근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. 이후 세 개의 글은 각각 인구·기술·기후변화가 촉발하는 사회적 위험의 양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범주를 각론 수준에서 다루었다. 이번 호의 초점이 향후 관련 논의와 대안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.